

한국광산업진흥회 제7회 정기총회 개최



이기태 삼성전자(주) 정보통신총괄사장 3대 회장 연임



이기태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장

한국광산업진흥회 제7회 정기총회에서 이기태 삼성전자(주) 정보통신총괄사장이 제3대 회장으로 연임되었다. 이회장은 2003년 3월 이후 3년 동안 2대 회장을 맡아오면서 광산업체들의 선두에서 마케팅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신규시장 진출 및 업체간 공동 협력사업을 위해 노력해 왔다. 취임사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2단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광산업 육성 3단계 사업의 대정부 지원정책을 이끌어 내는데 전념할 것이라 말했다.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기태) 제7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31일 광주테크노파크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총회는 이기태 회장의 인사말과 광주광역시 정무부시장의 축사에 이어 성원보고와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안건 심의에 들어가 200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2006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 임원선임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사에서 이기태 회장은 2000년 5월에 진흥회가 창립된 이래 6년여의 짧은 연혁에도 불구하고 광산업육성과 집적화계획 추진의 민간추진 주체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추진한 결과, 명실 상부한 국내 유일의 광산업 사업자 단체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국제적으로도 한국광산업을 대표하는 국제협력 대표기관으로 위상을 정착시켰다고 밝혔다. 이어서, 2002년

시작된 IT경기 불황으로 국제 광산업 시장이 극심한 불황을 겪었으나, 지난해 하반기까지 점차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생산라인을 24시간 Full 가동함은 물론, 금년도 매출목표를 전년 대비하여 50~80% 상향 조정하는 회원사가 속출하고



있다고 발표한 후, 광산업 침체기의 어려운 상황과 재정여건 속에서도 광산업육성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온 중앙정부와 광주광역시의 결집된 노력과 회원사 임직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금번 정기총회에서는 금년 6월 15일 자로 임원중 16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상근 임원을 제외한 회장 포함 임원 15명에 대한 임원사 선·해임 및 연임안을 의결했다.

이번 총회에서 이기태 삼성전자(주) 정보통신총괄사장이 한국광산업진흥회 3대 회장으로 공식 추대되어 올해부터 2009년 까지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한다.

이 회장은 2003년 3월 이후 3년동안 2대 회장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을 높이 평가받아 회원사의 만장일치로 연임이 추대 되었다.

1973년 삼성전자(주)에 입사하여 32년간 근무한 이 회장은 핸드폰 신화를 창출한 입지전적인 전문경영인으로 전세계적인 무선통신 신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전자, 통신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가 수여하는 '산업리더상'을 수상했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위주인 국내 광산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신형시장 선점을 위한 권역별 회원사간 공동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 R&D, 공동생산, 공동마케팅 지원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광산업육성 3단계 사업의 대



정부 지원정책을 이끌어 내는데 미력하나마 전념할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사업보고에서는 지난해 부터 회원사 밀착지원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사업추진시 반영하고 있으며, 광주지역 광산업체 전

수조사 실시 및 회원사 영입을 추진하였고, 광산업분야 세계일류상품을 발굴하여 6개 품목이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적인 활동도 강화하여 제10회 국제광산업협회 연차협의회에서 한국의 광산업 현황을 홍보하고, InterOpto 등 해외의 광관련 전문 전시회에도 회원사 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특히 작년 9월에는 국제광산업전시회가 종료된 후 쌍암공원 야외음악당에서 '광산업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광산업 관련 산·학·연·관 임직원·가족 축제한마당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시민이 동참하는 광산업의 장을 열었다.

| 임원 선임에는 한국단지공업(주) 이창원 대표이사, 우리로광통신(주) 김국웅 대표이사, (주)세협테크닉스 박정수 회장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이사진으로는 하나기술(주) 김도열 대표이사, 대성전기(주) 박재범 대표이사, (주)이렌텍 이세용 대표이사, (주)알에프텍 차정은 대표이사, (주)케이텍정보통신 권철규 대표이사, 동우옵트론(주) 김영준 대표이사, (주)이오테크닉스 성규등 대표이사가 선임되었고, (주)피피아이 김진봉 대표이사, (주)옵테론 신권식 대표이사, (주)코셋 김재현 대표이사, (주)피엔텔 김철 대표이사, 인탑스(주) 김재경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 되고, (주)지론테크놀로지 최현철 대표이사가 감사로 신규선임 되었다. |



또한,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회원사의 요구 및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권역별 간담회를 보다 더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이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광산업체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건의 활동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흥회는 그동안 추진된 광산업육성 1단계

(00~03) 사업과 2단계(04~08) 사업계획을 집대성한 "광산업 백서"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백서 내용에 대해 각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음과 동시에 정·관·산·학·연에 광산업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고하였다.

진흥회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광산업 해외 마케팅지원 사업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및 대만과 유럽지역까지 마케팅 거점 구축 혹은 에이전트 및 현지 연락사무소를 운

영하여 시장개척, 해외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정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동시에 시장 정보 제공, 계약체결 지원, 바이어 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9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국제광산업전시회를 위해서는 해외 바이어 유치 및 전시업체 유치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고, 동 기간 중에 열리는 APO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관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국내외 홍보를 통해 국제적으로 저변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LED 신호/조명시스템 시범구축사업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교통신호등 위주의 사업에서 한 단계 발전시킨R&BD 중심의 사업으로 변화시켜 기술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신규수요 창출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산업 해외 전문인력 유치 및 기술인력 교류와 투자유치 사업을 통해서도 광산업체 기술력 확보 및 매출증대 지원과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광산업 도약을 위한 인적요소의 지원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광산업 정보지원사업은 1단계 사업기간 동안 기구축한 광정보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국내 광산업체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광산업체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리고, 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 광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국가 표준산업 분류를 검토하여 광산업분야를 신규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FTA 활성화와 전자무역거래에 대응하여 광산업 e-Trade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회가 국내·외 교류의 창구 역할을 맡아서 지속적으로 회원사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외 수요자와 국내 생산자간 매칭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술 및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신속하게 반영하도록 최신 산업·기술정보 제공 및 발전방향 제시와 협업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산업 현황과 관련해서는 국내 및 세계 광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조사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업체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 자료수집·분석 및 가공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회원사 신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며, 광산업 공동브랜드(LUXKO)를 운영·관리하고, 지역 에너지 사업에 동참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KAPID**